

남녀노소 언제 걸어도 아름다운 산책길, 담양 용마루길



깎아 세운 듯한 석벽이 마치 성을 쌓은 듯이 산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월산은 말 그대로 가을 산이다. 가을이 되면 숲이 온통 붉은 색을 띠고 숲에 가린 바위의 자태가 독특한 풍광을 보여준다.

용마루길을 걷다 보면 나무로 지은 쉼터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벤치에 앉으면 멀리 보이는 추월산과 담양호 물결이 아름답기 그 지없다. 탁 트인 풍경이 여유롭게 심을 채워준다. 나무데크 길이 끝나면 흙 산책로가 시작된다. 수행자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또 다른 걷는 재미를 선물한다.

‘인생은 마치 산행과도 같습니다. 오르는 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산을 오르고 있냐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르려고 하지요.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산행 중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상에 던져진 나의 존재와 삶의 여정을 통해 다시금 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수행자의 길에 적힌 안내표지판의 문구가 새롭다. 특히 수행자의 길은 등산로 능선이 13개로 이뤄져 있어 능선마다 테마가 있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밖에 용마루길에 이어 현재 건너편 금성산성 쪽 수변을 따라 2km에 이르는 산책로 ‘제2용마루길’을 조성하고 있다. 기존 용마루길과 새로 조성되는 제2용마루길, 그리고 담양호 국민관광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산책로까지 모두 완료되면 담양호 수변을 일주할 수 있는 길이 조성돼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을을 제대로 즐기기도 어려운 요즘, 담양의 언택트 관광지로 손꼽히는 용마루길에서 가을을 만끽하는 건 어떨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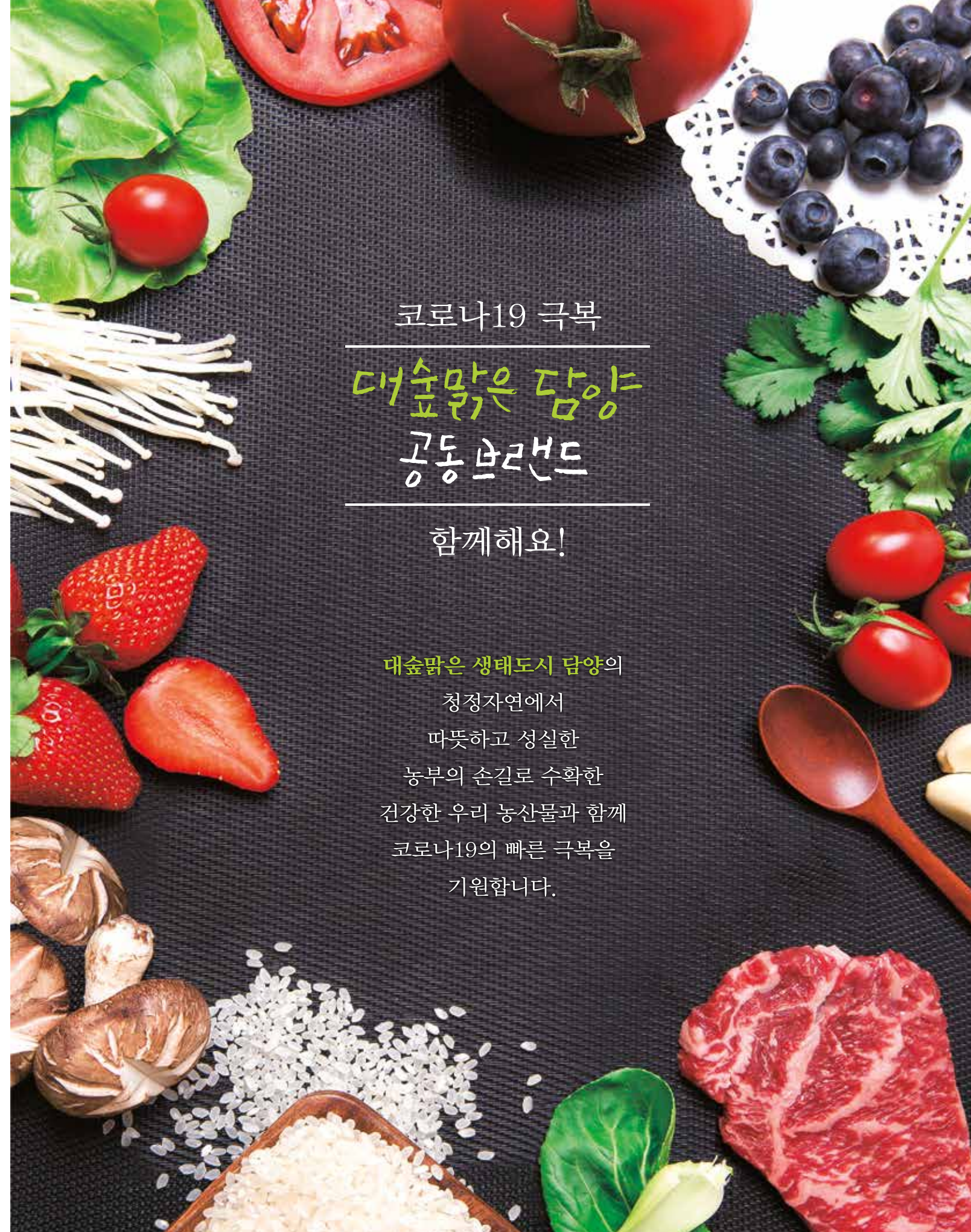
사계절 때때로 나무가 주는 위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담양.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길 등 가까운 거리에 뛰어난 풍경을 가진 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 사계절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다.

맑은 대숲 향기 가득한 담양에는 푸른 대나무만 있는 건 아니다. 에메랄드빛 담양호 수변을 따라 걷는 용마루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답답해진 일상을 해소하고자 자연을 찾는 이들에게 소중한 휴식을 선사한다.

담양군 용면 월계리, 영산강 시원지인 용추산 용소의 맑은 물이 계곡을 타고 내려와 담양호로 모여드는 곳, 담양의 명소 용마루길은 담양호의 수려한 전경과 추월산, 금성산성 등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담양호 수변을 따라 나무 데크와 흙길을 걷는 3.9km의 산책로다.

영산강의 발원지 용소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모여드는 담양호와 목교, 인공 폭포는 속이 뽕 뚫리는 풍경을 자아낸다. 용마루 산책길은 나무 데크 2.2km, 흙 1.7km의 길로 왕복 두 시간이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다. 대부분이 평지라 부담 없이 맑은 숲을 경험할 수 있다.

목교에서 주차장 쪽을 돌아보면 추월산이 보인다. 추월산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4호이며 전남 5대 명산 중 하나다. 수림과 기암괴석을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